

중국, 가전하향정책 확대 실시

대상제품 가격 상한철폐 소비 촉진 ... 석유화학 영향 주목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가전하향 대상제품의 가격 상한 철폐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강사이클에 접어든 석유화학 시장의 구세주로 평가되는 중국의 가전하향책이 확대·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가전하향 제품의 가격 상한 철폐안을 마련해 국무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장강상보(長江商報)가 10월27일 보도했다.

2009년 도입된 가전하향 정책은 농촌 가정이 가전제품을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진작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9월에는 가전하향 대상품목의 총 판매액이 61억8800만위안으로 전월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의 가전제품이 더 이상 농촌 가정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전제품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1년 전에 정한 상한가격이 시장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마련한 가격 상한 철폐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제품의 가격 상한을 없애는 대신 보조금 지급액의 상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하향 가격 상한제가 철폐되면 농민들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장만할 수 있으며 고급 제품 소비도 늘게 돼 가전제품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의 판매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7>